

6월 항쟁 20년

3 광주의 숨은 주역들

전공 살려 평범한 삶 속으로



20대 젊은이로 6월 항쟁의 중심에 섰다가 20년이 지난 오늘, 평범한 도시민으로 살아가는 숨은 주역들이 있다.



조선대 학내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백영권씨. 오른쪽은 87년 조선대 운동장서 열린 학내 민주화운동 집회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 (사진 가운데).



“누군가는 앞장서야”

에서 차량 10여 대를 방화한 혐의로 수배자가 됐다. “수배 중 전남대에서 열리는 6·10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40여 명의 조선대생을 만났습니다.



87년 6월 항쟁 당시 전남대 학생 ‘자위대’ 소대장이었던 박수본씨. 오른쪽 위는 당시 ‘자위대’ 간부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의 삶 후회 안해”

전남대 ‘자위대’(오월대 전신) 소대장이었던 박수본(40·당시 토목과 2년)씨는 전공을 살려 ‘미도 건설’(주)을 경영하고 있다.

일부 정계·시민운동 뛰어들어 광주은행 ‘민주 노조’ 결성도

당시 소대원 20~30명을 이끌고 금남로와 중앙로 등을 누비며 전투경찰로 대체됐다. 시위 대열의 학생들과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주된 임무였다.

대장을 맡아 89년 11월 민정당 정치연수원 습격에 나섰다.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뒤늦게 복학, 졸업한 그는 96년 금호건설에 입사했다.

금남로에 ‘네티어 부대’로 등장했던 광주은행 노조원들도 민중의 힘을 이끌어 낸 기폭제였다. 당시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련은 정부의 ‘4·13 호헌 조치’를 지지하는 등 사실상 ‘어울 노조’였다.

Advertisement for the Community Media Center (시청자미디어센터) featuring a tree graphic with a TV and a family photo. Text includes: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007년 6월 12일, 역동하는 젊음의 도시 광주에서 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식이 열립니다.', and details for two opening events on June 11 and 12, 2007.

‘40kg 감량’ TV 출연 여고생 ‘자살 원인’ 놓고 네티즌 논란

일반인들이 장기를 겨루는 프로그램인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여고생 이모(16)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자살 원인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이 프로그램에 출연, 3개월 만에 87kg의 몸무게를 47kg으로 줄였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던 이양은 지난 5일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가출 청소년 ‘티켓 영업’ 다방 업주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6일 가출 청소년에게 속칭 ‘티켓 영업’을 시킨 다방 업주 김모(여·25·광주시 북구 임동)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불잡아 조사 중이다.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truction Chemicals) featuring logos for DS Construction, KCC Paint, and other products.

감금된 채 성매매 당한 여중생 성매수자에게도 폭행 당해

6개월 동안 모텔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했던 광주 A양(14)이 성매수자에게도 폭행당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은 A양으로부터 “지난 3~4월께 광주 R모텔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남성이 성관계 후 아무런 까닭 없이 손과 발로 온몸을 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민취 집단 남편 옆에서 성폭행 당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가정집에 침입, 남편 옆에서 자고 있던 부인을 성폭행하고 도주. ○30대 가정주부 A씨는 6일 새벽 4시께 자신의 몸을 더듬는 손길을 남편으로 착각, 부부관계에 응했으나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더니 30대로 보이는 남자가 창문을 넘어 달아났다”며 광주 광산경찰에 신고.